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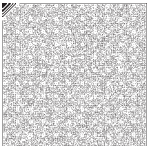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332호

2021년 3월 21일(나해)

사순 제5주일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승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예레 31,31-34

화답송 | 시편 51(50),3-4.12-13.14-15(© 12ㄱ)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5,7-9

복음환호송 | 요한 12,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요한 12,20-33

영성체송 | 요한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등산과 치킨에 관한 단상(斷想)

얼마 전 조카들이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집에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함께 산에 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등산이 아니라 둘레길 산책이었지만 초등학교생에게는 꽤 힘들었나 봅니다. 함께 걷는 내내 툭툭거렸던 녀석들에게 사채관으로 돌아와 치킨을 시켜주니 계는 감추듯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그때 먹었던 치킨이 최고로 맛있었어요. 어느 집 치킨이에요?” 사실 등산 후 허기짐 때문에 치킨이 맛있게 느껴졌던 것인데,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어린 조카의 질문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희생과 고통과 인내 없이 열매와 위로와 영광만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 복음(요한 12,20-33)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뇌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성자께서는 성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아울러 당신 제자들을 향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고 말씀하신 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요한 12,26)라고 덧붙이십니다. 이처럼 주

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 생애를 본받는 것,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등산과 치킨’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비유는 자칫 왜곡되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중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향하는 바가 ‘아무개 신부님의 미사와 강론은 특별하다.’, ‘어떤 기도를 바치면 은총이 많이 주어진다.’, ‘특정 기도 모임 혹은 성지를 가면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린다.’라는 식의 마음가짐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화려하며 넓은 꽃길보다 초라하며 좁은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박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버겁게만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그날그날의 십자가로 여기며 묵묵히 짊어진다면, 즉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솔뫼성지, 충남당진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요한 12,27)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높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서 제 마음으로 내려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단다.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 음성에 수줍게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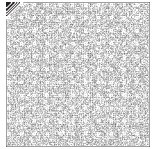
“주님! 저의 하느님!”



국성순 마리아 | 가톨릭사진가회



김상수 요셉 | 야구 선수



| 아버지의 장례미사

작년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야구를 시작한 것도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께서 유니폼을 입으신 모습이 어린 제게는 무척 멋져 보였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야구 글러브를 장난감 삼아서 놀던 제가 야구를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포지션도 아버지를 따라 유격수로 정했습니다. 야구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야구가 잘 안 풀릴 때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러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되시나 했더니, 암이 전이되어 재발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중 저는 어떻게든 한 경기라도 더 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부상으로 힘들 때였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야구선수 아들’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도 마침 본인이 좋아하던 음악 활동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해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역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하는 아들’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하셨고, 그 때문인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마지막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셨는데, 지켜보던 저와 어머니가 감탄할 정도로 평화롭게 떠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중이었지만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4~5일 쉬는 기간이 있었고, 덕분에 선종하시던 날은 제가 아버지 옆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왜 진작 시간을 내서 더 오래 같이 있어 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이 저를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마침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휴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테고 어쩌면 임종도 지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장례미사 역시 제게 아주 감동적이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신부님께서 공동으로 집전해 주시는 미사에, 정말 많은 신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미사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계속해서 위령기도를 바쳐주시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를 위로해 주시며 슬픔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표현하지 않으셨던 마음을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전해 들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새삼 느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 본당 활동을 하지 않아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아버지의 장례미사를 통해 제가 신앙공동체에 속해있다는 기쁨과 위안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가시는 길에 서조차 저에게 신앙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사한 경험은 제가 더 열심히 살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나눔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는 세상인의 빛이다
마태 5:14

신서영 라파엘라
의정부교구 마석성당

‘언플랜드 (Unplanned)’

이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2019년 감독: 척 콘젤만·캐리 솔로몬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일깨우십니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잊고 있거나, 거스를 때 눈앞에 진실을 보이시고는 “이래도 모르겠느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렇게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고서야 비로소 어리석은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인 가족계획연맹의 상담사로 일한 애비 존슨(애슐리 브래처 분)도 그랬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낙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신념으로 더욱 그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두 번의 낙태로 엄청난 고통과 분노, 자책과 죄의식을 경험했음에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임신부 2만여 명을 수술실로 들어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공로로 최연소 클리닉 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호된 충격을 주십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수술실에서 초음파 화면에 잡힌 머리와 팔다리가 또렷한 13주 태아가 살기 위해 수술 흡입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결국 빨려 들어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녀는 오열합니다. 지금껏 그녀가 우겨왔던 ‘아직 고통도 못 느끼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아주 작지만 완벽한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자부심은 수치심, 믿음은 배신, 일터는 감옥, 일은 죄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

녀가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 딸이었어.”(어머니),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과학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남편), “우리가 자궁 안의 고요함 속에 있을 때도 하느님께 서는 우리를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목사)

단지 듣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마음의 감옥, 양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탈출하면서 그녀는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 눈

물과 참회로 용서를 구했고,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두 아이를 비롯해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태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생명운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언플랜드〉는 애비의 실제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소 과장과 윤색은 있겠지만, 영화의 모습들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면서 애비가 말했듯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모습입니다. 더구나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우리의 현실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언플랜드〉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낙태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는 소중한 생명이고 주님의 섭리(사편 139)이며,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함부로 팽개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 5일(월) 오전 10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미사참석인원을 선착순 60명(수용 인원의 20%)으로 제한합니다(일행당 2인까지 신청, 추후 단계조정에 따른 인원변동 가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 22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대 2만 원-일행 간 띄어앉기로 인한 조기 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인원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후 알림 예정).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5일(월)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 식사및 성묘 개별준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미사 참석인원을 선착순 60명(수용 인원의 20%)으로 제한합니다(일행당 2인까지 신청, 추후 단계 조정에 따른 인원 변동 가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참석인원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후 알림 예정).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1년 3월 23일 박인선 도미니코 신부(59세)



2021년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 신청 단체 접수

2021년 하반기에 지원할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1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 ‘수혜단체 신청 안내’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4월 9일(금)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obos.or.kr

이메일: obos@obos.or.kr | 문의: 02)727-2263

교구청알림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20세 이상, 첫 영성체 필수) / **방법:** 구비 서류(명동성당 홈페이지 및 주보 공지 참조) 지참 후 신청일에 현장 방문
신청 일시: 4월18일(일) 14시~16시, 명동대성당 '탄남의 방'
모집 인원: 선착순 250명(사전신청 및 전화신청 불가)
준비 기간 및 방식: 4월18일(일) 16시~5월15일(토) 18시 /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기간 내에 총 7강의 동영상 강의 시청 완료 필수)
견진성사 접수 대상: 신청자 중 5월15일(토) 18시까지 동영상 강의 시청을 완료한 분
견진성사 접수·전례연습: 5월16일(일) 13시, 명동성당 마당에서 접수 후 대성전으로 이동(접수 및 전례연습 불참 시 견진성사 불가) / **접수 시 준비물:** 접수비 1만원(코사지, 사진값, 감사예물(정성껏 준비))
견진성사: 5월23일(일) 14시, 대성전(30분 전 입장완료 필수)
문의: 02)774-1784 본당 사무실 /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대부모집 참석 관련 추후 공지 예정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정미연 그림으로 읽는 복음전

전시일정: 3월24일(수)~4월5일(월)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8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이현규 신부(칠레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1 부활 특강 '시인 예수를 찾아서' 수강생 모집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부활을 맞아 정호승 시인의 특강 <시인 예수를 찾아서>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200명)

강의: 정호승 시인 / **문의:** 02)751-4107 홍보위원회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4월7일(수) 19시30분~21시30분(2시간)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6차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3월2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8기

교육명: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8기

대상: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개인 신청 가능)

때: 4월15일~6월17일 매주(목) 20시~21시30분(10주)

강의방식: Zoom(화상회의)을 통한 온라인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접수기간: 4월1일(목)까지 선착순 모집(사전모임 4월8일(목) 19시,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광주가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바르게 알아달라는 것**

시국 담화문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구호보다도 올바른 인식을”

지난 주 명동성당에서는 사회 복지회가 주축이
되어 광주시 혈액의 증식자들을 위한 헌혈이 실시되
고 수십명 혈액과 약품을 가지고 간호수녀 8명
과 김중호 신부(의사)가 광주로 급파되었다. 그런
이 이상하게도 예측된 바와는 달리 증식자가 별로
아래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 수용된 이들은, 이미
친구 조처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었
다 한다. 김신부 일행은 지참한 약품과 혈액을 광
주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미 광주 시
내 자체내의 헌혈 움직임이 대단하여 혈액 포곤을
일장고가 거의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헌혈의 의
의도자들은 이미 외부 의료진의 도움은 필요치 않은
상태이고 자체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물
질적인 도움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약품 살 돈이
있어야만 우리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다 충당했으
니 그 걱정은 말고 광주의 진실을 전 국민이 울
려야만 인식하도록 견제 주면 그것이 우리를 돕는
바이다" 라고 더욱더욱 고다 한다.

매스·콤 보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사상자 수를
전혀 밝혀 주지 못하고 있어 알 수 없으나 목격자
들은 한결같이 천인공노할 죄악이 백주대로에서
자행되었다고 증언한다.

한국 현대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을 「일부 극열 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대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정부 당국과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광주 시민들의 한 맺힌 가슴을 풀 길이 없으리라고 광주 사람들은 보고 있다. 한편 광주 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도 수차례 걸쳐 해당지 계엄 사령관에게 군의 가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력한 압력을 계속 하겠다고 한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illegible]

서울주보 1980년 5월 18일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이이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예수승천 대축일
부터 조국의 평화와 교회회신을 위해 9일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새로이 기도를 부터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버 5, 13)

이것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고
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이 보
십시오. 그 상제는 우리 민족이 근래에 당해
온 시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수 없는 사상자들과 병 위혈사태가 광주시
임근 전역에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해
왔습니다. 긴장과 불안과 슬픔속에 내일을
대차로 맞이한 이러한 불행에 물리적
한 충격을 받은 것은 형제끼리의 힘이 이
시각과 가족화하고 나라의 기쁨이
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은 마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조
국 안의 인건의 본연의 자식을 회
난을 추구하고 몸아 새우기에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되
어 하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들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친애하는 교형 자매

비인간적 총
국민도 군도
대적인 것으로
통론과 독설적
기반을 줄기롭게
형제 자매 여러
이 임하시도록 전
수도원에서는 여
평화를 간구하고 있
그리스도를 믿고 있
금 단식과 기도로 주
당 차원에서, 가정
하느님께 온신을 다하여
하겠읍니다.

주께서는 예집도에서 울
것은 이 사랑의 실랑미를
시었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입니다.

한 관으로 이런 사태에서 회생
지역의 형제들이 하부속히 안정
들은 병정환자 우리 모두가 광만
지름 해탈야 우리 모두가 광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구하

천주교 서울 대교구
1980년 5월

서울주보 1980년 6월 1일자

서울주보 111호(예수승천대축일)

서울주보 1980년 6월 8일자

1980년 5월 18일 자)는 위험한 시국에
대한 한국주교회의의 시국담화문을 실었습니다. 그
리고 서울주보 113호(삼위일체 대축일, 1980년 6월 1일 자)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월 23일 자로 신자들에게 전
하신 말씀을 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고, 당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5월 18일부터 조국의 평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9일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미얀마 시위 (사진 출처: BBC NEWS 코리아)

신자들에게 공지하신 바 있었는데, 현재 광주지역의 불행한 사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는 새로운 청원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기경께서는 숫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들을 낸 유혈사태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언론이 모두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은 서울주교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SNS가 발달한 오늘에 못지않게 무분별하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도가 사람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6월 8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주보 2면에 ‘구호보다 올바른 인식을’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보는 지난주 명동대성당에서 사회복지회 주관으로 광주사태 중상자들을 위해 헌혈이 실시되었고, 수집된 혈액 및 약품과 함께 간호 수녀 8명과 의사인 교구소속 김중호 신부가 광주로 급파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언급만 보더라도 광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소식이지만 당시 광주에서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때 광주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헌혈뿐이라며 윤락여성들도 헌혈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광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광주인사들은 서울대교구에서 급파된 신부·수녀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지원이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라 말했다는 소식을 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는 정확한 피해자 수는 물론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도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주교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 규정한 점은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용감하다는 말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 언론에 재갈이 물려 광주라는 단어조차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서울주교가 이런 주장을 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40년 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재 군부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미얀마의 불행한 사태와 똑 닮아 참 마음이 아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지해야 하겠습니까. 위장자도
인간인도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견
내세워서 안 될 것입니다. 감정적
집념을 벗어 버리고 형제적 화해의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분, 이 땅에 화해와 화해의 성령
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
에게 결정 철야기도로 하느님께
입니다.
르는 모든 교형자들은 지
에게 애원해야 되겠습니까. 각
원에서 우리 아버지가신
용서와 은총을 간청해야
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 받은 유배지에 눈물
고함땅에 둘러 보네
기도도 들어주시길
원 모든 형제의 영원
이 일고 있는 모든
을 되찾고 위정자
여망이 무엇인
나날을 보낼 수
부합니다.
23일
한 추기경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4월9일(금)~17일(토)·4월30일(금)~5월8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청년 피정(ICPE) / 문의: 010-7548-6664
주제: 나는 누구인가?(정체성 찾기)
때, 곳: 4월3일 10시~4일 16시, 마리스타(합정동)

주님 탄생 예고 묵상 피정(서울 마리아 학교)
때: 3월24일(수) 9시30분~13시(미사 있음)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접수): 010-9620-4820

제주교구 성지순례 3박4일(글라셋선교수도회)
때: 매일 출발 / 회비: 32만원
내용: 성지 6곳 순례 및 미사·성사(글라셋선교수도회 신부 동반) / 문의: 010-5150-2625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옴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4월5일~8일, 4월11일~14일
자연순례 피정	3월27일~29일, 4월16일~18일, 4월26일~28일, 5월1일~3일, 5월22일~24일

가정성교회 4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4월6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식사 준비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 신심미사	4월10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교육

묵주·반지·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복음화학교 143기 온라인(유투브) 개강
때: 3월24일(수) 10시~3월26일(금) 19시
수강문의: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5일(월)부터 10주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그리스어)
때: 4월부터 (화)·(금) 11시~13시(주1회, 1년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추가): 3월31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성음악 클래식기타 교육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월요일(4월5일 개강), 토요일(4월10일 개강) 14시~16시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내일이룸학교
때: 2월~12월 / 대상: 15세~24세 남자(학교밖청소년)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해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강 지급

ENTS(영어성경) on Zoom(성공회목회방선교회)
주제: 성경말씀 안에서 착한목자의 개념과약
강사: 안 페트릭 신부 / 회비: 3만원
때: 4월6일~6월15일 매주(화) 19시~20시30분
문의(접수): 02)953-0613(ents.columban.or.kr)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람·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평신도 영성강좌(한국CLC)
때: 4월8일~5월13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6주)
곳: 한국CLC(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온라인 6만원, 청년할인 50%) / 02)333-9898

4월8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현재우 (종교학 박사, 서강대·수원 가톨릭대 강사)
4월15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4월22일	오병이어, 사랑의 힘	
4월29일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5월6일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5월13일	사랑의 질서와 영적훈련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3월24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1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주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3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잔디 미사장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인내

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십과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상담·전화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성빈센트정신분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심리·가족상담 /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명상심리치유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에너지그래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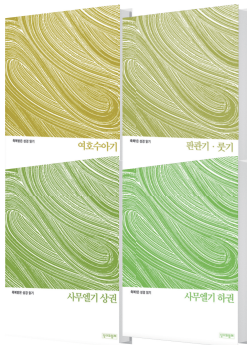
직원모집

해방촌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795-3404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시설물 관리·미화 가능자 /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 3월26일까지 이메일(amor07240301@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성북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3월31일(수)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온라인	010-4241-1210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4월4일(일) 14시·18시(선택 가능)	온라인(Zoom)	010-4096-5973 마리오엘 수녀
예수 고난회	4월3일(토) 18시~4일(일) 12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3월28일(일)	본원(삼전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여호수아기, 판관기·룻기, 사무엘기 상권·하권 문제집)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 성서와함께
여호수아기 44쪽, 판관기·룻기 48쪽, 사무엘기 상권 60쪽, 사무엘기 하권 44쪽 | 각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여인들

한국천주교여자수도화상연합회 사도직
변천사 집필팀 지음 | 본도출판사
440쪽 | 2만2천원 | 문의: 02)2266-3605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여 년. 그동안 여자 수도자들은 분당,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 근현대사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왔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걸어온 그 헌신의 여정을 13개 사도직을 중심으로 수도자들이 직접 기술했다.



영화

부활

상영관: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문의: 02)595-9094

십 년 전 내전의 땅 아프리카 수단에서 헌신하다 마흔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영화 <부활>이 3월26일(금)부터 부활절 기간 특별 상영한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영화를 통해 감동과 눈물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연주회

국립합창단 183회 정기연주회 <MODERN TIMES>

문의: 1544-1555 인터파크, 1544-7744 롯데콘서트홀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 2명 30% 할인 (R석, S석)

국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모던 타임즈(MODERN TIMES)>가 3월23일(화) 오후 7시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현대음악으로 재해석한 우리 민요, 라틴어 합창, 한국 초연 작품 등 다양한 합창곡들을 선보인다.

YouTube

CPBC 뉴스

유튜브 검색창에 "CPBC 뉴스"를 입력하세요.



제작: 보도국 보도제작부 | 앵커: 맹현균 기자

방송시간: 월~금 10시, 17시, 22시30분

CPBC 뉴스(가톨릭평화방송)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코로나19 속 성당 상황은?", "명동에서 노숙인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국내외 가톨릭 소식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채널 'CPBC 뉴스'.

가톨릭평화방송 보도국 기자들이 다양한 교회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합니다. 노숙인, 미혼부모, 장애인 등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부터 환경, 외교, 노동, 교육 등 여러 사회 현안까지. 가톨릭 시각이 담긴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초대석 '어서 오세요'와 흥미로운 취재 스토리가 담긴 '뉴스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cpbc-뉴스 채널 QR

◎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 견진교리는 현장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진행순서: 견진교리 신청 →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완료 →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 견진성사

1. 견진교리 신청

·신청대상 :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신청일시 : 4월 18일(주일) 오후 2시 ~ 4시

·신청장소 : 명동대성당 내 '만남의 방'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신청
☞ 선착순 250명, 사전신청·전화신청 불가
☞ 당일 신청 인원 미달 시 5월 9일(주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현장 신청 시 각 개인별로 온라인 클래스 ID & Password 발급 및 수강 방법을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 신자	① 증명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교적 본당
타 본당 교적 신자	기본 구비서류(①~④)	교적 본당
	⑤ 신청자의 교적증명서	
	⑥ 견진의뢰서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공지 본문에 파일로 첨부돼 있으니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사무실에서도 배부합니다.)

※⑥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반드시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강의기간 : 4월 18일(주일) 오후 4시~5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총 7강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 완료해야 합니다.

3.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접수대상 : 4월 18일(주일)~5월 9일(주일) 견진교리 신청자 중 5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동영상 강의 시청을 완료한 이

·접수일시 : 5월 16일(주일) 오후 1시 ~ 3시

·접수장소 : 명동대성당 내 '만남의 방' 앞마당

·준비사항 : 접수비 1만원 (코사지와 사진값), 감사예물 (정성껏 준비)

※접수 후 전례연습을 위해 대성전으로 이동하십시오.
※견진성사 접수 및 전례연습 불참 시 견진성사 불가!

4. 견진성사

·견진성사 : 5월 23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오후 1시부터 '만남의 방' 앞에서

출석 확인 후 코사지와 명찰 수령

☞ 오후 1시 30분까지 대성전 입장 완료!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대부모님 참석 가능 여부는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견진성사를 위한 내적인 준비로 고해성사는 사전에 미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과 미사보(여성)를 준비해 주십시오.

·문 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기부 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3월 8일 ~ 3월 14일 : 1,900,000원)

누계 : 2,191,548,958원

익 명 : 1,000,000원	익 명 : 500,000원
문 선 회 : 200,000원	김 종 문 : 100,000원
김 효 원 : 100,000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과 사순 시기를 맞아 신앙심 고취와 사순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독려하며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명동대성당 교적 신자 (※타 본당 불가)

·기 간 : 2월 17일(수) ~ 4월 4일(주일)

·대상도서 :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출판사 - 바오로딸

·행사내용 :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택일하여 제출

① 대상 도서의 서간 중 10편 이상을 선택하여 필사

② 대상 도서의 서간을 정독하고 독후감 작성

·시 상 : 기간 내 필사 또는 독후감 제출 신자 중 순위를 정하여 시상 (※시상품 추후 선정)

※대상도서는 개인별로 구매하여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 성지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활 동 : 평일(월~토) 오전 10시 미사의 해설·독서 봉사

·지원자격 : 세례 받은 지 만 3년이 넘은 50세 이하의 여성 신자, 서울대교구 내 거주자

·모집기간 : 3월 21일(주일) ~ 4월 4일(주일)

·문 의 : ☎ 010-6427-6959

※지원방법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성주간 전례 안내

일 시	내용/시간	집전자	장 소
4월 1일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오전10시)	염수정 추기경님	대성전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손희송 총대리주교님	
4월 2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구요비 주교님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유경춘 주교님	
4월 3일 성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오후 8시)	염수정 추기경님	
4월 4일 부활대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염수정 추기경님 ※ 미사는 주일 미사 시간과 동일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 목요일부터 부활 성야까지는 위 전례 외에 다른 미사가 없습니다.

※ 4월 2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지 보호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 시기(2월 17일~3월 31일)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활 집중 판공이 없사오니 3월 31일(수)까지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는 배부하지 않사오니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고해성사 휴무 : 4월 1일(목)~4월 11일(주일)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

다음 주 3월 28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당일 미사에는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희생, 특별히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3월부터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언어 :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금요일	16: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5:00 ~ 17:00	
주 일	08:30 ~ 08:50	대성전 고해소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취소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다 함께 봉헌하던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 개방시간(월-금 11:00~16:00)을 이용하시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 4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4월 4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최요안 (세례자요한) 신부
주일반	오후 4:00	최 마리세레나 수녀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영향판 사진 1매

◎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 견진교리는 현장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견진교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기타 유의사항은 '주보 안쪽 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8-3/14).....19,555,000
- 사순 제 4 주일 헌금.....14,273,000
- 감사헌금 (3/8-3/14).....2,447,000

강 아네스 / 김 레지나 / 김 안젤라
배 프란치스코 / 신 레오니아 / 오 엘리사벳
이 리베라도 / 이 아오스딩 / 이 에다나
이 헬레나 / 임 사무엘 / 장 요셉피나
황 힐데가르트